

詩經素材와 賦比興

이 채 문*

< 目 次 >

I. 緒論	3. 素材와 興
II. 素材와 賦比興	III. 結論
1. 素材와 賦	< 參考目錄 >
2. 素材와 比	

I. 緒論

《詩經》은 중국 최고의 詩歌集으로 西周初부터 春秋中葉까지의 오백여 년에 걸쳐 周王朝의 疆域內에서 불려오던 詩歌를 수집하여 엮은 詩歌總集이며,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 여겨져왔다.

이러한 《詩經》이 원래부터 風·雅·頌의 三部分으로 分類되어 傳해지고 있는데, 風에는 周南·召南·邶·鄘·衛·王·鄭·齊·魏·唐·秦·陳·檜·曹·豳 등 十五個國風에 160篇이 있고, 雅에는 小雅와 大雅가 있는데 小雅74篇·大雅31篇이 있으며, 頌에는 周頌·魯頌·商頌에 40篇이 있다.

風은 각 지방의 土樂이며 서민들이 부른 서정가요이고, 雅는 고대 王畿에서 부르던 正樂이며 주로 사대부의 문인들이 지은 宮中雅樂이고, 頌은 「容」의 뜻으로 神에 대한 제례나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儀禮에서 무용과

* 光州女專 觀光中國語科 教授

더불어 불리던 樂曲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賦·比·興에 대해서는 古來의 學者들 間에 의견이 분분하여 그 뜻을 명확히 알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本稿에서는 지금까지 學者들이 주장에 근거하고, 素材¹⁾와 賦·比·興의 관계를 통하여 좀 더 賦·比·興의 명확한 의미와 素材와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素材와 賦比興

賦·比·興의 문제는 古來로 수많은 학자들을 곤란에 빠트렸다. 그러나 필자는 素材가 《詩經》속에 나타나 지니는 지위를 분석함으로써 혼란스러운 점을 다소 해소하려 한다.

素材의 출현은 그것의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賦·比·興의 뜻을 연구하는 한가지 길인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아마도 素材가 그것의 작용에 해당되지 않는 詩篇에 대해서는 대답을 할 수 없을지라도 애매한 부분은 규명될 것이다.

比·興의 뜻에 비해 賦의 뜻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比는 본래 매우 간단한 詩法이었다. 그러나 鄭玄과 朱熹가 香草美人式의 주석을 한 후부터는 오히려 그 뜻이 애매모호해 졌다.

1. 소재와 賦

1) 《文學批評用語事典》 金允植編著 一志社 91年8刷本.

「素材(material)란 예술가가 작품을 제작할 때, 그 원료가 되는 일체의 자연적·의적으로 주어진 것, 즉 미적 가치의 원리에 의해 통일적으로 형성된 예술작품에 대해, 아직 채 예술적 형성을 이루지 않는 상태의 재료를 말한다. 이처럼 넓은 뜻으로 말해지는 소재는 우선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표현 수단으로써의 소재. 이를 보통 媒材(medium)라 부른다.

둘째, 표현 대상으로서의 소재. 이를 題材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는데 本稿에서 素材라 함은 표현 수단으로써의 素材를 말한다.

詩三百篇 中에서 「賦」라고 명명된 첫번째의 작품이 周南의 <葛覃>²⁾이다. 朱熹가 賦의 아래에 내리는 정의는 「賦者, 敷陳其事, 而直言者也.」인데, <葛覃>은 사실상 「敷陳其事而直言」의 詩가 아니다. 이 詩篇은 三章으로 나누어지는데 「葛」은 비록 開章의 식물이지만 점점 보조적인 요소로 변해가고 결코 歌頌의 대상은 아니다. 이 시의 주제는 「歸寧父母」이다. 葛은 당연히 방직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시의 예술적인 면에서 볼 때 같은 출현은 근본적으로 주제를 이끌어 내는데 협조한다. 이러한 상황과 檜風<隰有萋楚>篇중의 「萋楚」와는 완전히 다르다. 사실상 國風속에서 진정한 「賦」의 작품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國風속에서 진정한 賦의 뜻을 갖고있는 詩篇은 아마도 邶風의 <七月>이 가장 두드러질 것이다. 이 詩篇속의 草木五穀의 출현과 월령·계절의 추이, 또한 각종 식물의 출현은 결코 그 시의 보조적인 것이 아니다. 草木五穀은 반드시 그 식물이 생산되는 계절과 정확히 일치되어 출현할 뿐만아니라 시인은 심지어 詩章의 완성된 韻脚을 위해서 그것들의 위치를 옮기는 번거로움은 취하지 않았다.

此와 興의 시속에서 草木은 韻脚의 장식용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자주 音韻要求의 제한을 받아 기타의 요소가 草木의 변화를 지배한다. 秦風의 <黃鳥>는

131:6 <黃鳥>

2) 2:2 <葛覃>

제1장

葛之覃兮, 施于中谷.
維葉萋萋, 黃鳥于飛, 集于灌木, 其鳴喈喈.

제2장

葛之覃兮, 施于中谷.
維葉莫莫, 是刈是濩, 爲絺爲綌, 服之無數.

제3장

言告師氏, 言告言歸.
薄汚我私, 薄澣我衣, 害澣害否, 歸寧父母.

제1장

交交黃鳥, 피꿀피꿀 피꼬리가
 止于棘, 가시나무에 앉았네.
 誰從穆公, 누가 목공을 따라죽었나,
 子車奄息, 자거씨의 엄식이란 분이지.
 維此奄息, 이 엄식이란 분이야말로
 百夫之特, 백사람 몹에 견줄 만한 분.
 臨其穴, 묘혈에 들어갈 때에는
 惴惴其慄, 부들부들 떨리셨겠지.
 彼蒼者天, 저 푸른 하늘이여,
 殲我良人, 어찌 이런 분을 빼앗아갔는가.
 如可贖兮, 만약 그분 몸을 살 수 있다면
 人百其身, 백 사람으로도 그분을 되찾으려면.

제2장

交交黃鳥, 피꿀피꿀 피꼬리가
 止于桑, 뽕나무에 앉았네.
 誰從穆公, 누가 목공을 따라죽었는가,
 子車仲行, 자거씨의 중항이란 분이지.
 維此仲行, 이 중항이란 분이야말로
 百夫之防, 백 사람을 당해내실 만한 분.
 臨其穴, 묘혈에 들어갈 때에는
 惴惴其慄, 부들부들 떨리셨겠지.
 彼蒼者天, 저 푸른 하늘이여,
 殲我良人, 어찌 이런 분을 빼앗아갔는가.
 如可贖兮, 만약 그분 몸을 살 수 있다면
 人百其身, 백 사람으로도 그분을 되찾으려면.

제3장

交交黃鳥, 피꿀피꿀 피꼬리가
 止于楚, 싸리나무에 앉았네.
 誰從穆公, 누가 목공을 따라갔던가,
 子車鍼虎, 자거시의 겐호란 분이지.
 維此鍼虎, 이 겐호란 분이야말로
 百夫之禦, 백 사람을 막아내실 만한 분이였지.
 臨其穴, 묘혈에 들어갈 때에는
 惴惴其慄, 부들부들 떨리셨겠지.
 彼蒼者天, 저 푸른 하늘이여,

獵我良人, 어찌 이런 분을 빼앗아갔는가.
 如可贖兮, 만약 그분 몸을 살 수 있다면
 人百其身. 백 사람으로라도 그분을 되찾으려만.

으로 되어 있는데, 시인이 이 세가지(棘·桑·楚)의 식물을 선택한 이유는, 이 세 종류의 식물과 龜息·仲行·鍼虎와의 押韻을 맞추기 위해서임이 확실하다. 즉 棘이 먼저이고 楚가 나중이라는 것이 詩 자체의 예술에 있어서는 결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賦인 <七月>편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이다. 草木五穀을 절령에 따라 정확하게 출현시키기 위해 시인은 詩中 기타의 요소들로서 변화시킨다.

154:1<七月>

제6장

六月食鬱及薺, 유월엔 들배와 머루 따먹고
 七月亨葵及藜, 칠월엔 아욱과 콩 삶아 먹으며
 八月剝棗, 팔월엔 대추털고
 十月穫稻, 시월엔 벼를 베어
 爲此春酒, 맛 좋은 약주 빚어
 以介眉壽, 노인들 수 빌며 잔 올린다네.
 七月食瓜, 칠월엔 오이 따먹고
 八月斷壺, 팔월엔 박을 따며
 九月叔苴, 구월엔 삼씨 줍고
 采荼薪樗, 씩바귀 캐고 개동나무 베어
 食我農夫. 우리네 농사 일꾼 먹인다네.

농촌활동의 서술에 따라 농작물을 서술하였다. 秦風<黃鳥>篇의 音韻은 後者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 시편 속에서 內容과 形式(the cultural and the merterial)은 모두 植物과 절령과의 절대적인 관계에 고려하여 이루어져 있다.

關風<東山>篇은 「賦」詩이다. 그러나 상황은 좀 다르다. 朱熹는 이 시를 품평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심한 것 같다. 그는 앞 三章을 「賦也」라고 하고, 마지막 章은 「賦而興也」라고 하였다. 詩中の 草木果實은 桑·果贏·瓜·栗 네

종류인데 중요한 것은 이 네 종류의 식물이 한 종류도 어떠한 詩行의 末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이 詩의 작자는 무의식적으로 이 네 종류의 소재로써 脚韻의 요구에 만족케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식물의 존재는 詩藝上의 需要와는 무관한데, 이것이 곧 「賦」의 특색이다. 마지막 절은 식물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朱熹는 「賦而興也」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하다. 末章에는 「興」의 기교가 있기때문에 그 章속에

“倉庚于飛, 피꼬리가 푸드득
 熠燿其羽, 고운 날개짓을 자랑할 때,
 之子于歸, 아내는 시집을 왔는데,
 皇駁其馬” 누런말 얼룩말이 수레 끌었지.

를 삼입하여 혼례의 특수한 기분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혼례기분은 얼핏보면 「東山」篇의 枝節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병사의 기억이다.

2. 소재와 比

이상의 여러 시편들에서 賦와 소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比도 여러상황하에서 볼 때, 「賦」와 마찬가지로 명확하다.

衛風 <木瓜>는 마치 「賦」와 「比」의 중간인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표준적인 「比」이다.

64:10 <木瓜>

제1장
 投我以木瓜, 나에게 모과를 던져주기에
 報之以瓊琚, 아름다운 패옥으로 보답하나니.
 匪報也, 보답이 아니라
 永以爲好也. 영원히 친하게 지내자는 거요.

제2장

投我以木桃, 나에게 복숭아를 던져주기에
報之以瓊瑤, 아름다운 구슬로 보답하니.
匪報也, 보답이 아니라
永以爲好也. 영원히 친하게 지내자는 거요.

제3장

投我以木李, 나에게 오얏을 던져주기에
報之以瓊玖, 아름다운 옥돌로 보답하니.
匪報也, 보답이 아니라
永以爲好也. 영원히 친하게 지내자는 거요.

이것은 「比」이다. 과일과 보물간에는 等比의 맛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이
詩에서 二章·三章이 一章의 반복이 아니라면 이 詩는 곧 「賦」이다.

衛風의 또다른 시 <淇>에는 '桑'이 세 번 출현하는데, 이 역시 「比」의
技巧이다. 詩 속에서 여자가 '桑'으로써 자신을 比喻한 것이다. 이것은 서양
시학에서 「暗喻」에 해당되며, 이것은 또 「이미지의 發展」(imagistic develop-
ment) 효과를 갖고 있다.

朱熹는 衛風의 <淇奧>篇을 「興也」라고 하였는데, 필자는 오히려 이것은
「比」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적어도 「興而比也」라고는 할 수 있다. 전통적
인 해석으로는 이 詩를 「衛人이 武公의 道를 美化한 것이다. 綠竹으로써
그 학문의 수양을 興한 것이다.」(《詩集傳》)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竹의
생장은 곧 武公의 덕행과 학문적 수양이 증진됨을 나타낸 것이다. 곧 「猗
猗」, 「青青」, 「如簧」 등은 그의 수양을 比喻하는 것인 것이다. <淇奧>속의
'竹'字는 押韻의 의무가 없다. 이 詩의 竹은 그 종류가 변하지 않는데, 이것
이 「比」詩의 두드러진 공통점이다. 이 詩 속의 淇水가에는 다른 초목은 자
라지않고 단지 竹만 나타나는데, 淇水는 원래 유명한 竹產地이다. 毛傳에는
竹을 篇竹(Polygonum aviculare L.)으로 일종의 草本이라 하였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毛公은 아마도 그가 살던 시대에 너무 집착했던것 같다. 즉, 漢
代에 淇水가에서는 한 그루의 綠竹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竹을 篇竹
으로 단정했던것 같다. 사실 漢代 이전에는 淇水가에 竹이 많았었다.³⁾

毛公이 이 詩를 「興也」라고 단정한 것은, 그가 竹을 篇竹으로 믿었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竹이 만약 草本의 篇竹이라면 당연히 衛 武公을 「比喩」할 수 없다. 朱熹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그는 이 詩篇의 綠竹을 대(竹·Polygonum aviculare L.)로 보았지 草本의 篇竹으로는 보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毛公을 따라 「興也」라고 하였다.

衛風 <竹竿>篇에서 鄭道元의 말을 증명할 수 있다. <竹竿>篇은 「賦」詩인데, 고기뿔을 때 사용되는 竹竿이므로 草本植物로는 고기뿔은 도구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詩經속의 素材와 賦比興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興」이다.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興」詩속의 식물은 彤上 詩行의 末에 나타난다.

23:12 <野有死麕>

제2장

林有樸櫨, 숲의 잔 나무와
野有死鹿, 들의 죽은 사슴을
白茅純束, 흰 띠풀로 싸 가보니
有女如玉, 아가씨는 구슬 같네요.

이 詩篇에서 「樸櫨」의 지위는 下文의 一行이나 首行과 脚韻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반적인 「比」詩속의 草木은 항상 行中에 나타나는데 押韻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않다. 鄭風<有女同車>篇으로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필자는 이 詩를 朱熹가 말한 「賦」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좀더 고려해보면 「比而賦也」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詩속의 草木은 전형적인 「明喩」의 작용을 하고있다.

83:9 <有女同車>

제1장

- 3) 鄭道元<水經> 淇水注曰:「漢武帝塞決河,斬淇園之竹,寇恂爲河內,伐竹淇川,治矢百餘萬. 今通望淇川,無復此物。」

有女同車, 한 여인이 나와 함께 수레 타고 있는데
 顏如舜華, 얼굴이 무궁화 같네.
 將翱將翔, 가벼운 걸음걸이에
 佩玉瓊瑤, 아름다운 패옥이 쟁그렁거리네.
 彼美孟姜, 어여쁜 강씨대 맘팔은
 洵美且都, 정말 아름답고 어여쁘네.

제2장

有女同行, 한 여인이 나와 함께 길을 가는데
 顏如舜英, 얼굴이 무궁화 같네.
 將翱將翔, 가벼운 걸음걸이에
 佩玉將將, 패옥 소리 달랑거리네.
 彼美孟姜, 어여쁜 강씨대 맘팔의
 德音不忘, 고운 그마음 못 잊겠네.

여기에서 여자는 舜으로 比喩되고 있다. 舜이 사람의 얼굴로 비유되는 것은 후대의 시인들에게서는 많이 나타나지만 《詩經》 시대에 그러한 創意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식물 자체는 押韻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花」와 「英」으로써 下文의 다른 字와 協韻되고 있다. 이 외에 또 한 식물이 행중에서 「比」의 기능을 한 예를 齊風의 <南山>篇 후반에서 볼 수 있다.

101:6 <南山>

제3장

蓺麻如何, 삼을 심자면 어떻게 하나,
 衡從其畝, 종횡으로 밭을 갈아야지,
 取妻如何, 장가를 들려면 어떻게 하나,
 必告父母, 반드시 부모님께 고해야지.
 既曰告止, 이미 고하고 데려간 것을
 曷又鞠止, 어찌해 또 괴롭히는가.

제4장

析薪如何, 장작을 쪼개려면 어떻게 하나,
 匪斧不克, 도끼가 없으면 못 쪼개지.

取妻如之何, 장가를 둘러면 어떻게 하나,
 匪媒不得, 중매가 없으면 안되는 거지.
 既曰得止, 이미 중매로 장가 들었거늘
 曷又極止. 어찌해 또 곤란하게 만드는가.

여기에서 「麻」와 「薪」은 혼인의 풍속을 암시하고 있다. 이 詩는 民歌의 맛이 농후한데, 역시 「比」의 범주속에 들어간다.

齊風 <甫田>속의 「莠」도 농사 상황을 나타내는 특수한 比喻에 속한다.

3. 소재와 興

「興」의 技巧을 분석해보면 식물의 출현은 音韻의 形式·主題와의 관계가 비교적 복잡하게 관련되어져 있다. 식물이 詩行의 末에 나타나고, 기타의 詩行과 押韻의 관계에 있을 때는 반드시 「興」이라는 이러한 원칙은 대체로 國風속의 작품에서 잘 들어 맞는다. 지금 朱熹의 <詩集傳>으로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詩經에서 제일 첫번째로 「興也」라고 평한 것이 周南의 <關雎>篇이다. 興을 <詩集傳>에서는 「先言他物,以引起所詠之辭也.」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朱熹는 왜 시인이 「先言他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興을 賦·比와 같이 寫作技巧의 일종으로 생각하였을 따름이다.

朱熹는 賦比興의 뜻을 분별해내는 방법을 찾아냈지만, 그 자신은 헛갈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詩集傳>中 「比」와 「興」의 분별은 애매한 것이 많은데, 興詩라고 한 것에는 그것들이 식물과 기타의 자연 이미지만 있으면 興詩라고 할 수 있다라고만 말하였지, 그것들이 興詩가 될 수 있는 절대적인 條件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였다.

曹風 <鳩鳴>篇은 比·興의 技巧가 결합되어 최고의 경계를 이룬 작품이다.

152:3 <鳩鳴>

제1장

鳩鳩在桑, 빠꾸기가 뽕나무에 앉았는데
 其子七兮, 새끼도 일곱마리.
 淑人君子, 훌륭한 군자님은
 其儀一兮, 그의 거동이 한결같네.
 其儀一兮, 거동이 한결같으니
 心如結兮, 그 마음 변함없어라.

제2장

鳩鳩在桑, 빠꾸기는 뽕나무에
 其子在梅, 새끼들은 매화나무에.
 淑人君子, 훌륭한 군자님은
 其帶伊絲, 흰 실 띠를 두르셨네.
 其帶伊絲, 두른 그 띠는 흰실이고
 其弁伊騮, 고깔엔 예쁜 구슬이 달렸어라.

제3장

鳩鳩在桑, 빠꾸기는 뽕나무에
 其子在棘, 새끼들은 가시나무에.
 淑人君子, 훌륭한 군자님은
 其儀不忒, 거동이 어긋나지 않네.
 其儀不忒, 거동이 어긋나지 않으니
 正是四國, 은 세상을 바로 잡으시리라.

제4장

鳩鳩在桑, 빠꾸기는 뽕나무에
 其子在櫟, 새끼들은 개암나무에.
 淑人君子, 훌륭한 군자님은
 正是國人, 나라 사람들을 바르게 하시네.
 正是國人, 나라 사람들을 바르게 하시니
 胡不萬年, 어찌 만수무강 못하시리.

이 詩의 첫장은 「比」이다. 시인은 鳩鳩와 그 七子의 생활형태로써 淑人·君子의 처세풍도를 比喩하였다. ‘桑’은 첫장에서 어떤 詩行과도 押韻關係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시인은 「兮」字의 자유로운 운용으로 음악상의 체중을 해소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첫장에서 정말 押韻한 것은 「兮」字 앞

의 「七」字와 「一」字라는 것이다. 이 一章이 比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의 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제2·3·4장은 제1절과는 달리 「興」이다.

桑으로 音韻上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2·3·4장 중에 세 종류의 草木, 즉 梅·棘·榛을 갖다 놓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鳩는 桑樹 위에 머물러 있고 七子는 끊임없이 방향을 변동시키는데, 이것이 곧 순수한 형식미인 것이다. 또 「鳩在桑, 其子在梅, 其子在棘, 其子在榛」은 제 2·3·4장 詩中の 가리키는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나무들의 출현은 곧 協韻을 위해서이다. 이것이 곧 「興」詩 구조의 전형적인 예이다. 만약 梅·棘·榛 이 세 종류 草木의 출현은 무슨 필요가 있어서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곧 아래 문장의 絲·式·人과 각각 押韻하기 위해서 라고 말할 수 있다..

陳風 <東門之池>의 상황도 <鳩>와 거의 동일하다. 麻·紵·菅이 歌·語·言과 協韻한다. 이와 같은 예는 매우 많은데 魏風<汾沮洳>,<園有桃>篇·唐風<采芣>篇·秦風<黃鳥>篇·齊風<載馳>篇·鄘風<牆有茨>,<桑中>篇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詩篇등에 나타나는 草木은 어떤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朱熹는 말해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것은 모두 「興」시이며, 이러한 詩篇속의 草木은 모두 押韻의 책임을 지고 있다. 王風 <揚之水>에서 이러한 예가 두드러진다.

68:4 <揚之水>

제1장

揚之水,	잔잔히 흐르는 물결은
不流束薪,	나무 다발도 떠내려 보내지 못하네.
彼其之子,	내 님을 멀리두고
不與我戍申,	나는 신 땅에 수자리 사네.
懷哉懷哉,	그럽고 그리운지고
崧月于邁歸哉.	어느 달에나 나는 돌아가려는지.

제2장

揚之水, 잔잔히 흐르는 물결은
不流東楚, 싸리 다발도 떠내려 보내지 못하네.
彼其之子, 내 님을 멀리두고
不與我戍甫, 나는 보땅에 수자리 사네.
懷哉懷哉, 그림고 그리운지고
曷月予還歸哉. 어느 달에나 나는 돌아가려는지.

제3장

揚之水, 잔잔히 흐르는 물결은
不流東蒲, 갯버들 다발도 떠내려 보내지 못하네.
彼其之子, 내 님을 멀리 두고
不與我戍許, 나는 허땅에 수자리 사네.
懷哉懷哉, 그림고 그리운지고
曷月予還歸哉. 어느 달에나 나는 돌아가려는지.

이 詩에서 만약 蒲가 許에서만 자라고, 楚가 甫에서만 자란다면 이러한 원칙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詩人은 원래 서로 다른 세 地名을 생각해냄으로써 인해 그에 따라 세 가지의 協韻될 수 있는 草木을 끄집어낸 데에 불과하며, 이 세가지의 草木과 세 地名간의 필연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詩篇은 곧 興體詩인 것이다.

衛風 <碩人>은 例外이다. 물가에 성장하는 葭와 茨이 詩속에서는 결코 특수한 音韻價値를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詩의 「興」은 제일 末章인 「河水洋洋, 北流活活, -----」에 있다. 朱熹는 前3章은 碩人의 아름다움을 직접 서술한 賦이므로, 일률적으로 「賦」라 하였다. 그러나 末章의 성질과 前3章은 서로 같지 않다. 이 詩에는 하나의 명확한 변화가 있다. 미인의 찬송과 迎接으로부터 자연의 描寫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 詩篇의 密度와 맛을 깊게 해준다. 興의 기능을 두 세마디의 말로 나타내는 어렵지만, 興은 詩의 開章 혹은 詩의 結尾에 올 수 있다. 衛風<碩人>篇과 小雅<出車>篇은 結尾에 위치하였지만 이 둘은 다 興詩이다. 단락중에 위치하는 草木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감소된다. 그러므로 葭와 茨은 押韻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상과 같은 예로 볼 때, 興의 目的은 곧 詩의 面目을 美化시키고 詩의

形式을 美化시킬 뿐만아니라 어떤 때는 詩의 內容까지도 美化시키는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한 美는 일반적인 美醜의 美가 아니라 美學上的 用語이다. 詩의 效果는 왕왕 「興」의 사용에 의해 강화된다. 이러한 상황은 최소한 中國傳統詩學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興」은 中國 敘情詩의 特殊精神이라고 말할 수 있다.

III. 結論

<詩經>은 중국 최고의 詩歌總集인데 古來의 經學者들은 이를 純文學的인 측면에서 보다는 儒家經典的인 측면으로 詩를 해석해왔다. 그러나 근래로 純文學的인 관점에서 詩를 연구·감상하려는 추세이다.

<詩經>에서 素材의 役割은 그 素材의 原始形態로써 사실을 서술하는 「賦」의 수법으로 표현되고, 素材의 形態·性質등으로 어떤 사실을 比喻하여 나타내는 「比」의 수법으로 표현되고, 素材 그 自體 혹은 그 性質로써 인간의 감정을 誘發시키는 「興」의 수법으로 표현되었다.

賦는 比와 興에 포함되며 比는 賦를 포함하여 興에 포함되며 興은 賦와 比를 동시에 포함하는 縱的關係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素材와 賦·比·興과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素材와 賦·比·興과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賦·比·興의 含意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 參考文獻

- <毛詩正義>(冊一·二·三·四) 唐孔穎達疏 臺灣中華書局 民國57年5月臺2版
 <毛詩鄭箋> 漢毛亨傳 鄭玄箋 臺灣中華書局 民國72年12月臺4版
 <詩三家義集疏>(上·下) 王先謙撰 世界書局印行 民國68年10月再版
 <詩集傳>(一·二) 朱熹撰 臺灣學生書局 民國59年10月影印初版
 <詩毛詩傳疏> 清·陳奐著 臺灣學生書局 民國70年11月6版
 <毛詩傳箋通釋>(冊一·二·三) 清·馬瑞辰撰 臺灣中華書局 民國69年1月臺3版
 <毛詩傳箋通釋>(上·中·下) 清·馬瑞辰撰 中華書局出版 1989年3月北京第1次印刷

- <詩經原始>(上·下) 方玉潤著 藝文印書館 民國70年2月3版
 <詩經通論> 姚際恒著 廣文書局有限公司 民國68年5月再版
 <毛詩會箋>(一·二·三) 日·竹添光鴻撰 臺灣大通書局印行 民國64年9月再版
 <詩經欣賞與研究>(一-民國66年12月5版·
 二-民國68年2月修正再版·
 三-民國70年10月再版·
 四-民國73年1月初版) 裴善賢·糜文開著 三民書局
 <詩經評釋>(上·下) 朱守亮著 臺灣學生書局 民國73年10月初版
 <詩經辭典> 董治安主編 山東教育出版社 1989年4月1次印刷
 <詩經辭典> 向熹 編·郭錫良 校 四川人民出版社 1987年10月2次印刷
 <詩經索引> 陳宏天·呂嵐 合編 新華書店北京發行所發行 1984年3月北京第1次印刷
 <詩經句法研究> 楊合鳴著 武漢大學出版社出版發行 1993年3月第1次印刷
 <三百篇演論> 蔣善國著 臺灣商務印書館印行 民國69年6月臺2版
 <詩言志辨> 朱自清著 五洲出版社 民國60年9月出版
 <毛詩古音考>(上·下) 明·陳第撰 廣文書局印行 民國66年10月再版
 <詩經義韻臆解>(上·下) 吳步江著 臺灣學生書局 民國71年12月初版
 <詩經動植物圖鑑叢書>(上-陸氏草木鳥獸蟲魚疏圖解·毛詩名物圖說)
 (下-毛詩品物圖攷·詩經名物辨解)
 晉·陸璣 等撰 大化書局印行 民國69年4月再版
 <毛詩品物圖考> 阿元鳳撰集 臺南新世紀出版社印行 民國64年3月初版
 <中國古典文學研究叢刊>(詩歌之部1) 臺灣 巨流圖書公司 民國66年10月一版一印
 <詩經賦比興研究> 金英美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碩士學位論文
 1984年12月
 <詩經中 賦比興の 藝術手法> 黃泰運 忠北大 論文集 第27集 1984年6月